

2014. 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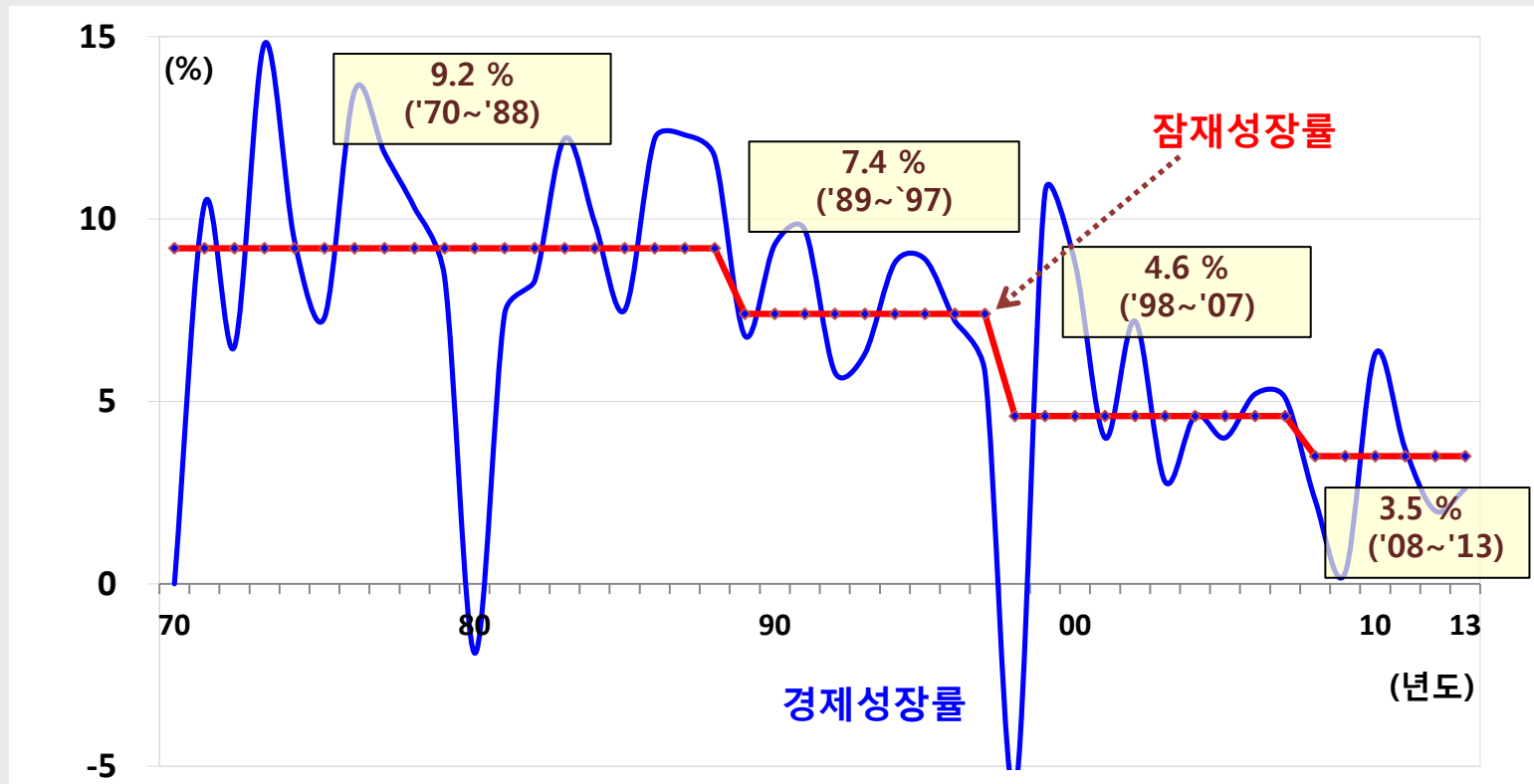
토 론 자 료

현대경제연구원
김 주 현 원 장

1. 내수 부진의 배경: 잠재성장률 하락

-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임

<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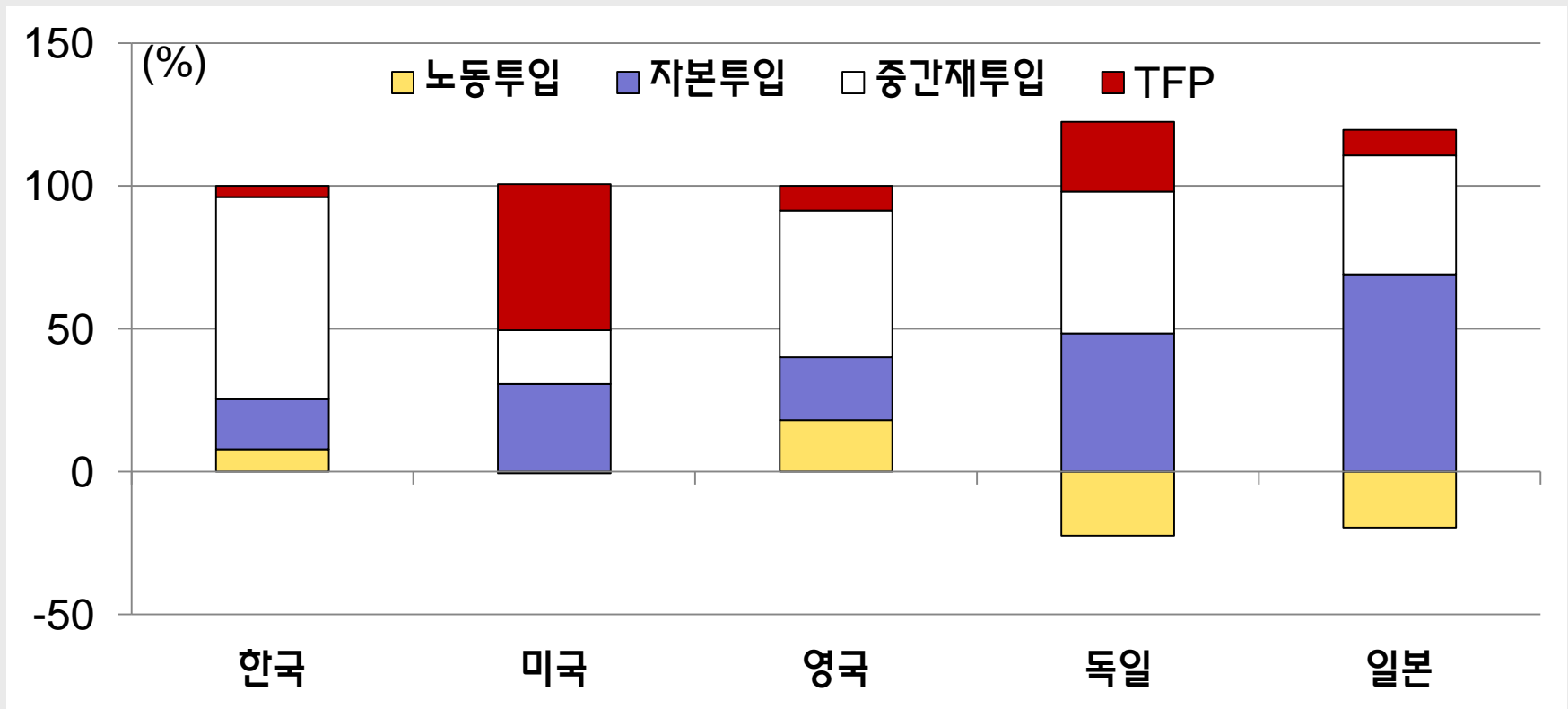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

1. 내수 부진의 배경: 잠재성장을 하락(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 미약)

- 한국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구조
특히 경제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TFP의 기여율은 매우 낮은 편

< 주요국의 산출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율 (2000년대) >



자료: 한국생산성본부

주 1) 한국은 2001~2011년 기준. (2001~2005년 TFP의 산출기여율은 3.44)

2)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1~2005년 기준

1. 내수 부진의 배경: 잠재성장을 하락(인구구조의 악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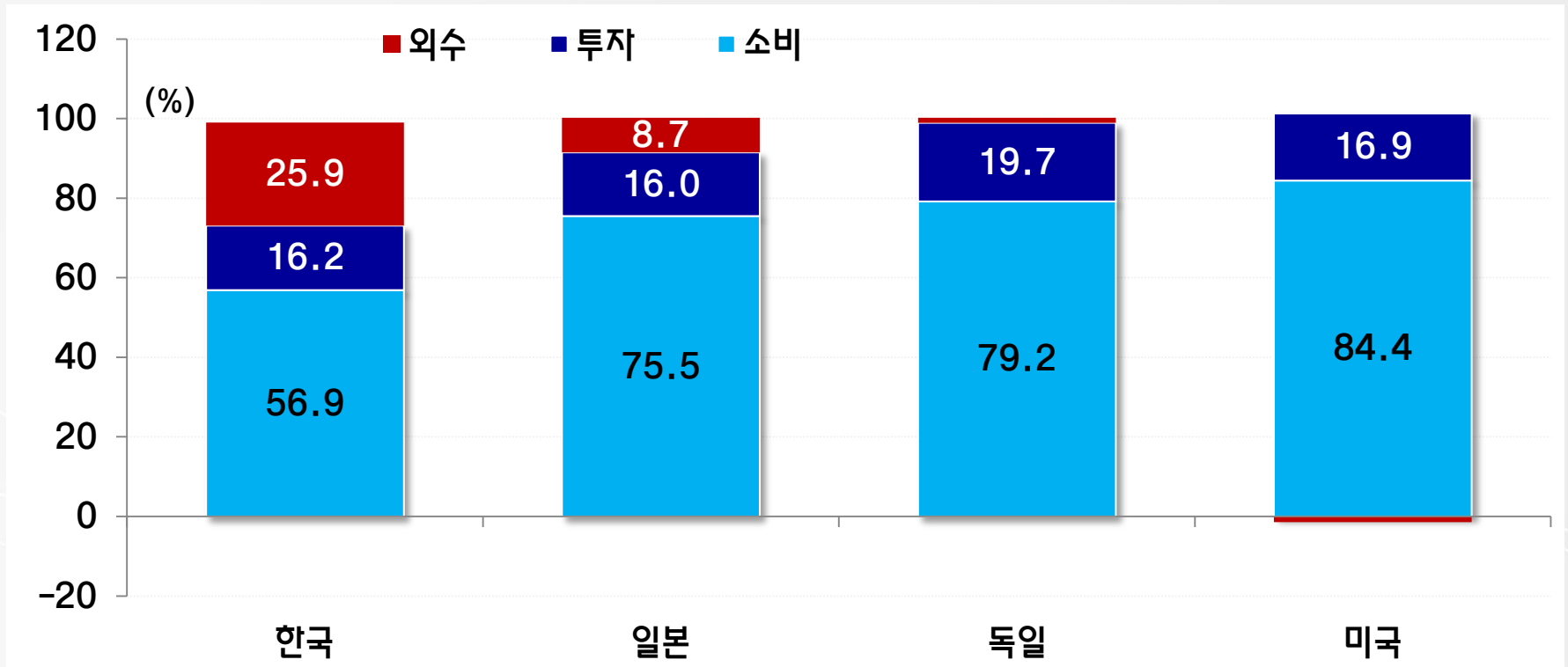
- 급격한 인구구조의 악화:
고령화사회(7%:2000년), 고령사회(14%:2018년), 초고령사회(20%:2026년)
- 합계출산율은 2010년 1.23명에서 2040년 1.42명으로 추정한 것임

| | 2010 | 2030(p) | 2050(p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총인구(만명) | 4,941 | 5,216 | 4,812 |
| 영유아 인구(%) (~14세) | 16.1 | 12.6 | 9.9 |
| 생산가능인구(%) (15~64세) | 72.8 | 63.1 | 52.7 |
| 고령인구(%) (65세~) | 11.0 | 24.3 | 37.4 |

2. 내수 활성화 과제: 내수 부진 현황

-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도달시 한국의 내수 기여율은 73%로
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

<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도달시 내외수 기여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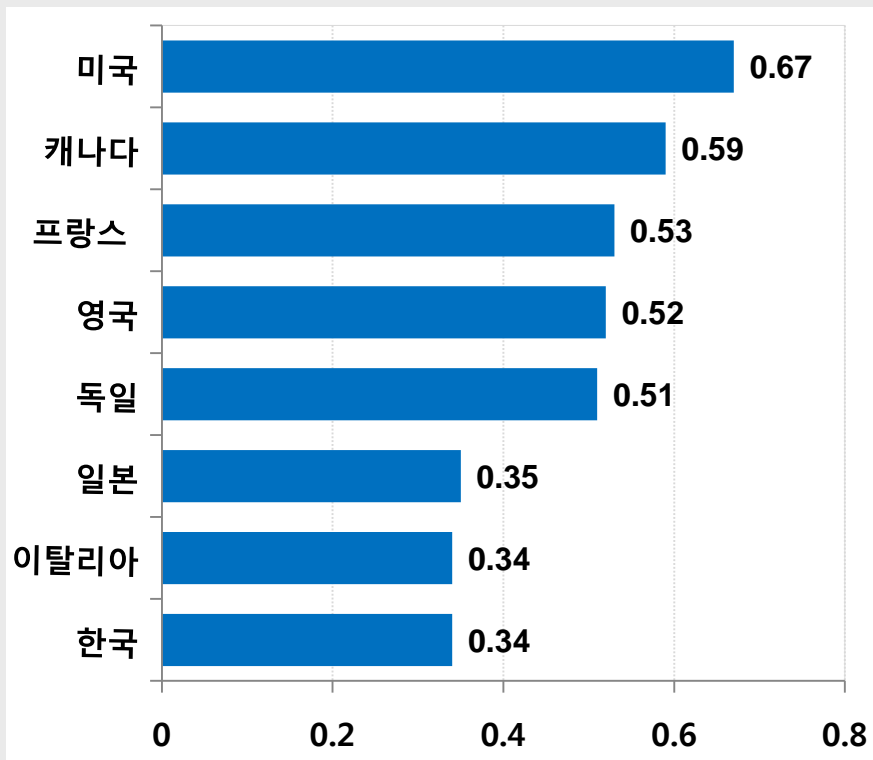


주 : 한국 07~13년(단, 09년 제외), 일본 87~92년, 독일 90~04년, 미국 88~97년 평균 값임.

2. 내수 활성화 과제: 투자 활성화(기업가 정신 회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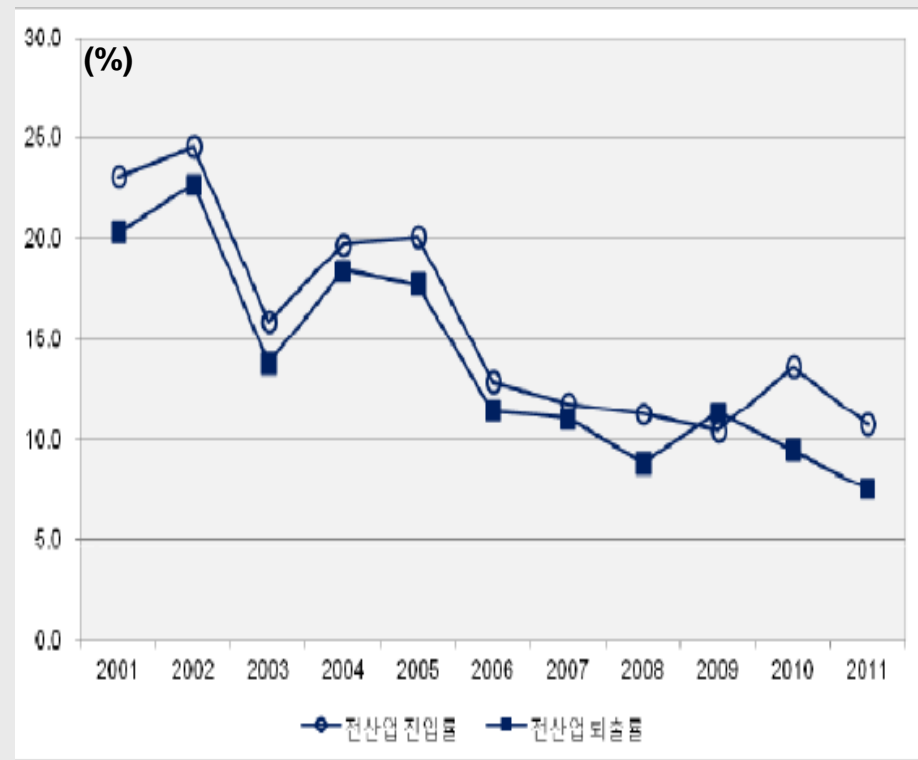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 117개국중 **37위**: 미국(1위), 스웨덴&덴마크(2위), 호주(4위), 캐나다(5위) 순
- 기업 진입 및 퇴출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

< 기업가 정신지수(GEDI, 2013년) >



자료: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
주: 기업가 0~1 사이의 값을 가짐

< 기업의 진입률 및 퇴출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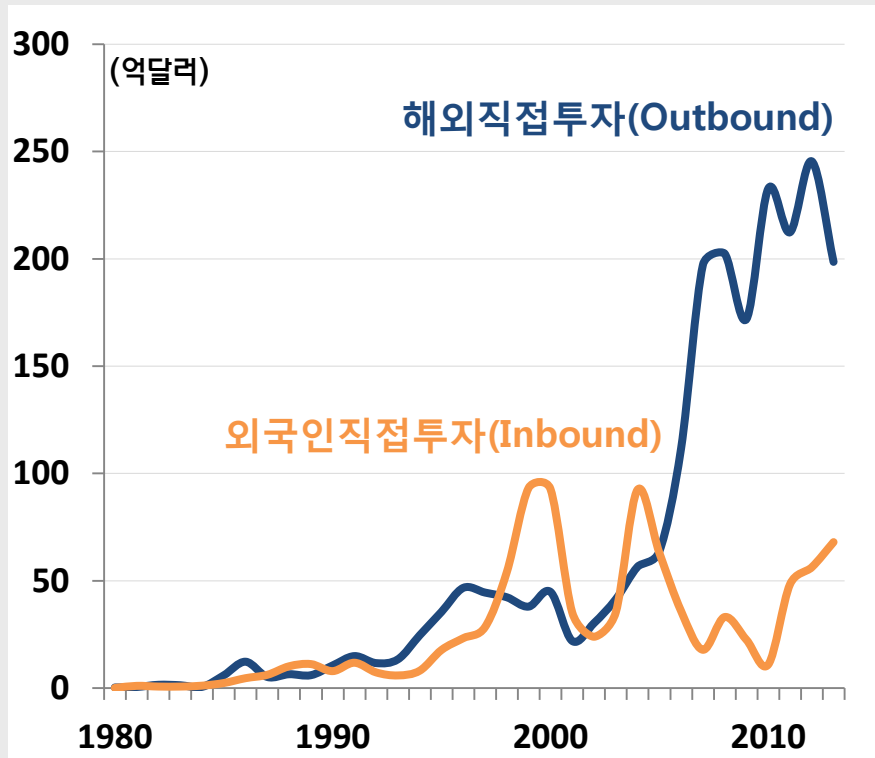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DI(2013), Structural Changes & Creative Destruction in the Korea Economy

2. 내수 활성화 과제: 투자 활성화 (투자 환경 경쟁력 제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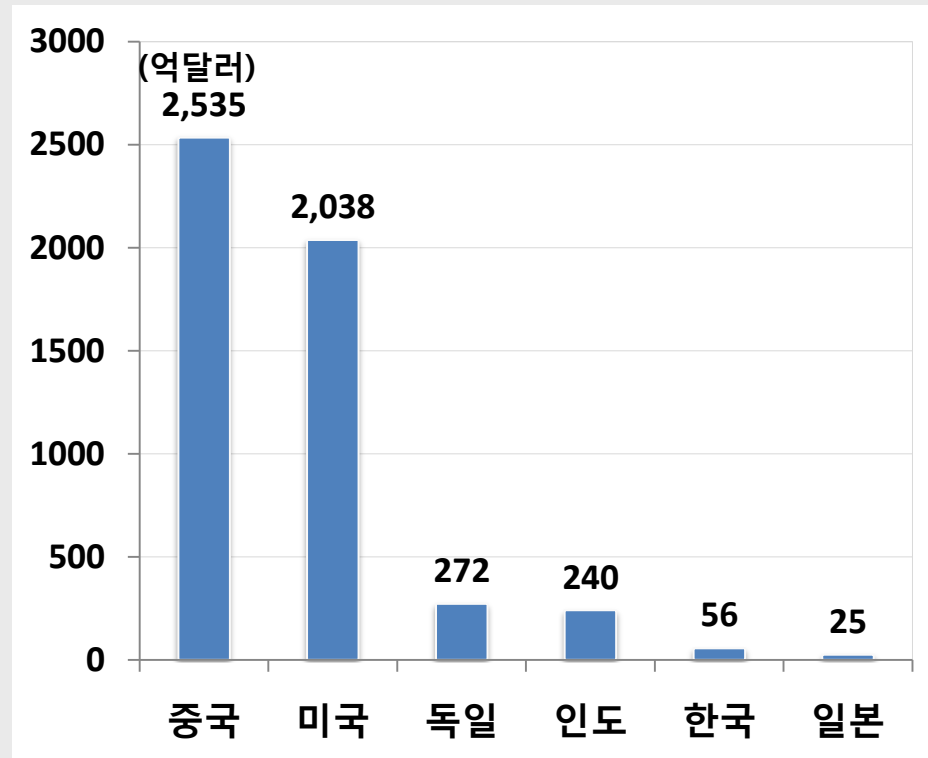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투자는 발생하나 해외투자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저조
- 투자환경을 비교하면 매력도 떨어짐(시장 & 공장, 지역HQ, R&D센터 등)

< FDI 해외 유출 및 국내 유입 규모 >



자료: 한국은행

<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비교(2012년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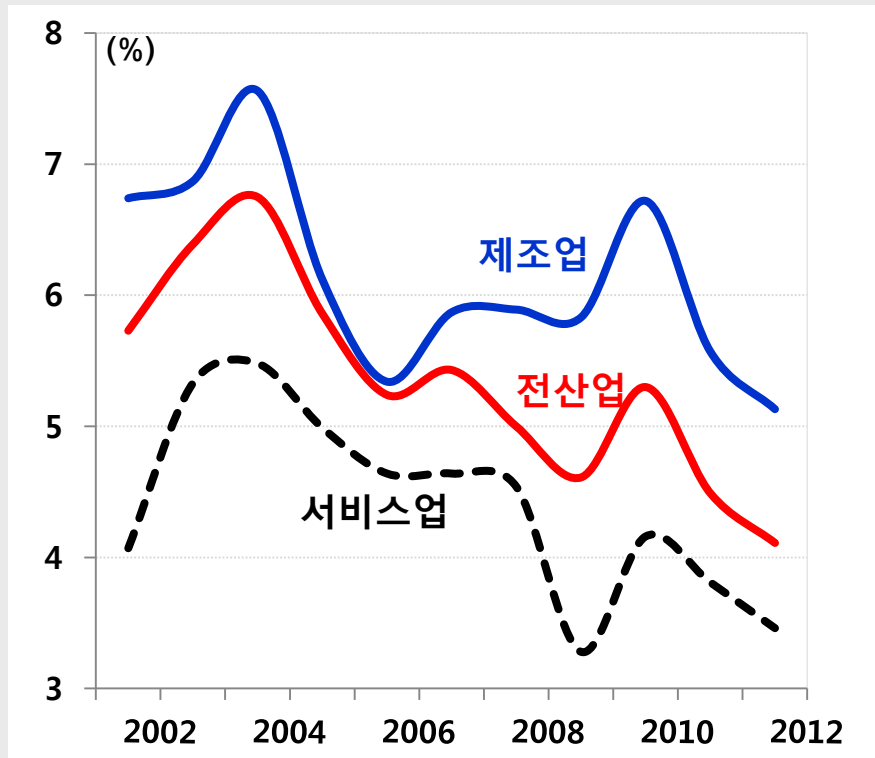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세계은행

2. 내수 활성화 과제: 투자 활성화(기업 수익성 제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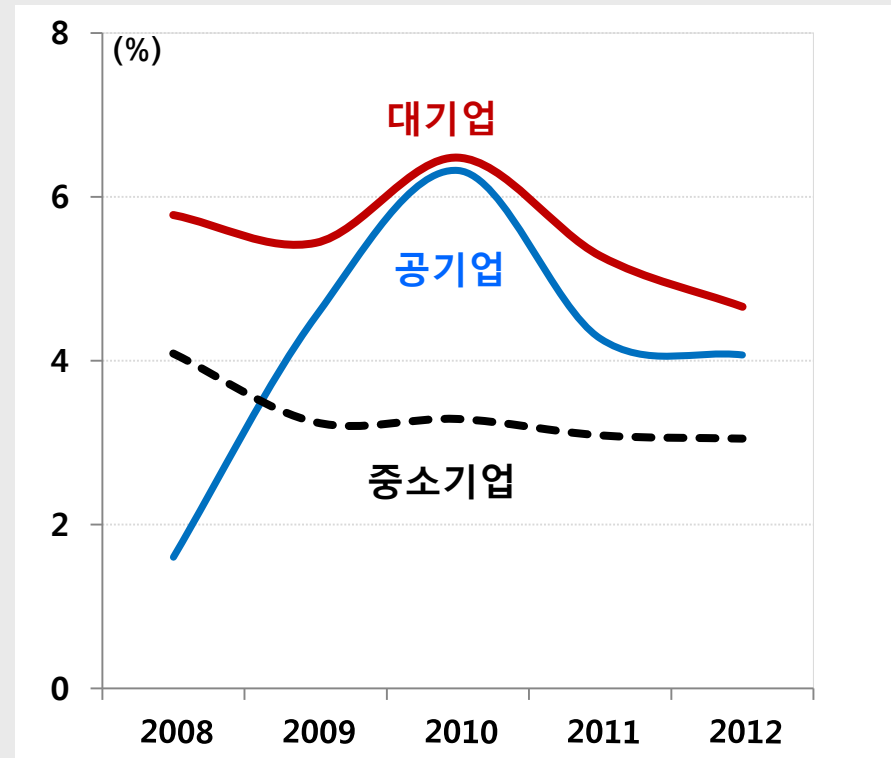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수익성은 지난 10년간 점진적 감소 추세임
-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고,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음

< 기업 영업이익률 >



자료: 한국은행,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.

< 공기업 및 일반기업 영업이익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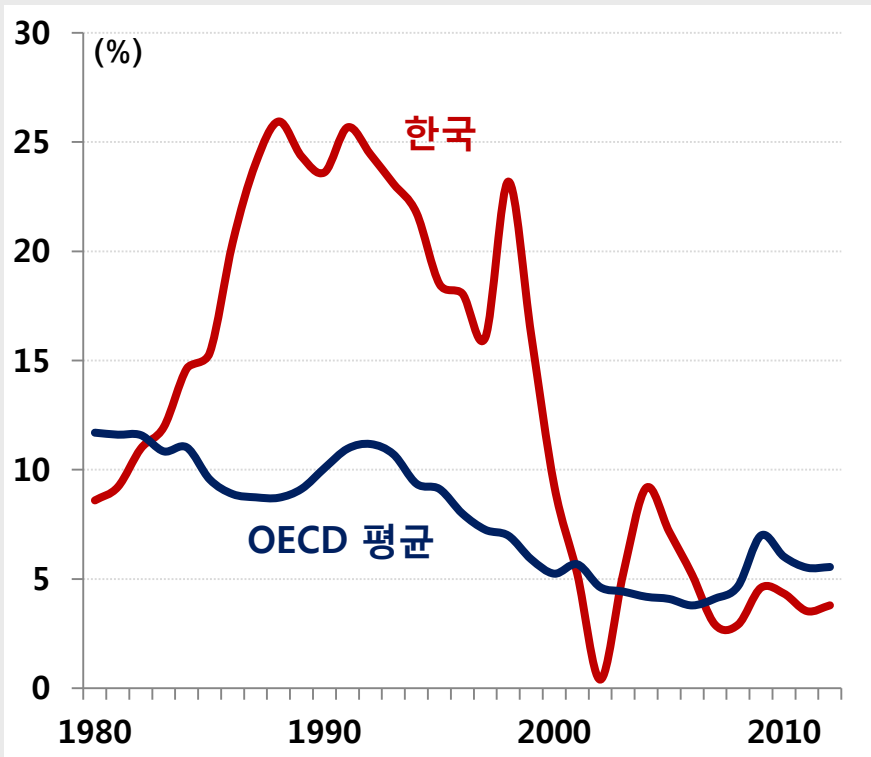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.

2. 내수 활성화 과제: 소비 여력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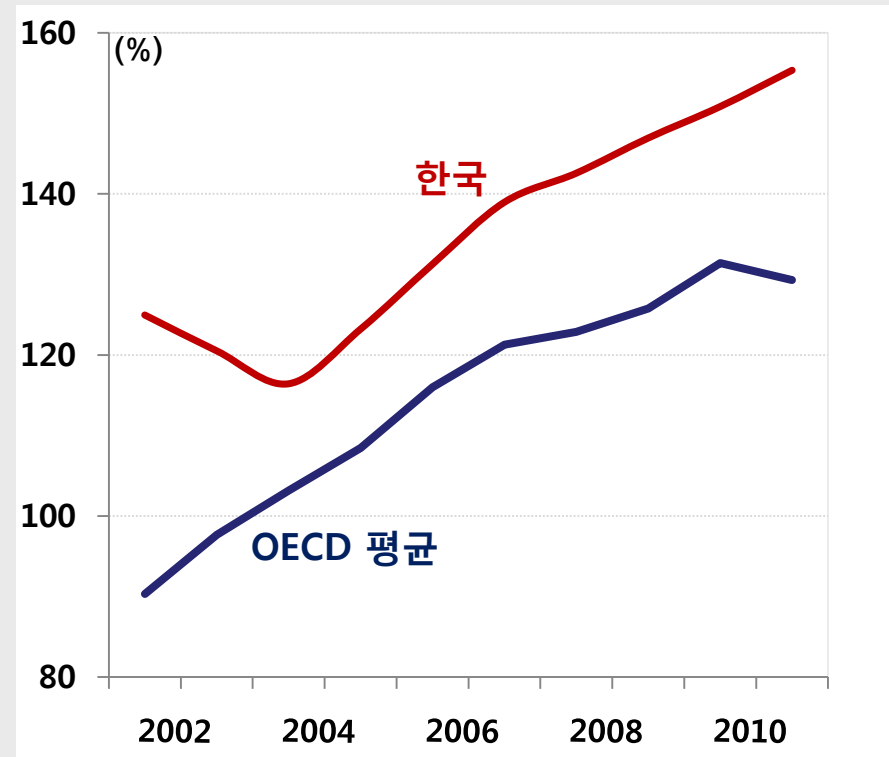
- 순저축률은 외환위기후 급락하여 한자리수로 낮아졌으며,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엔 5% 이하로 낮아졌고, 가계부채가 급증함

< 가계 순저축률 추이 >



자료: OECD

<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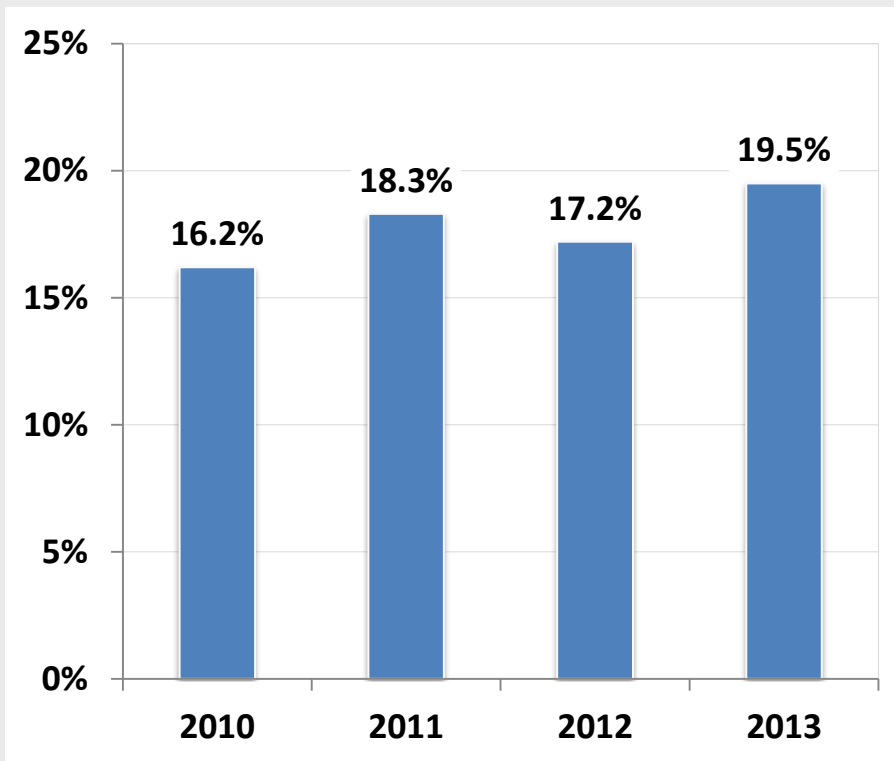


- 주: 1) OECD 가계부채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가계부채(가계대출+판매신용) 비중과 다름
2) 한국은행,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3(상) 137%

2. 내수 활성화 과제: 소비 여력 확충(경직성 지출 축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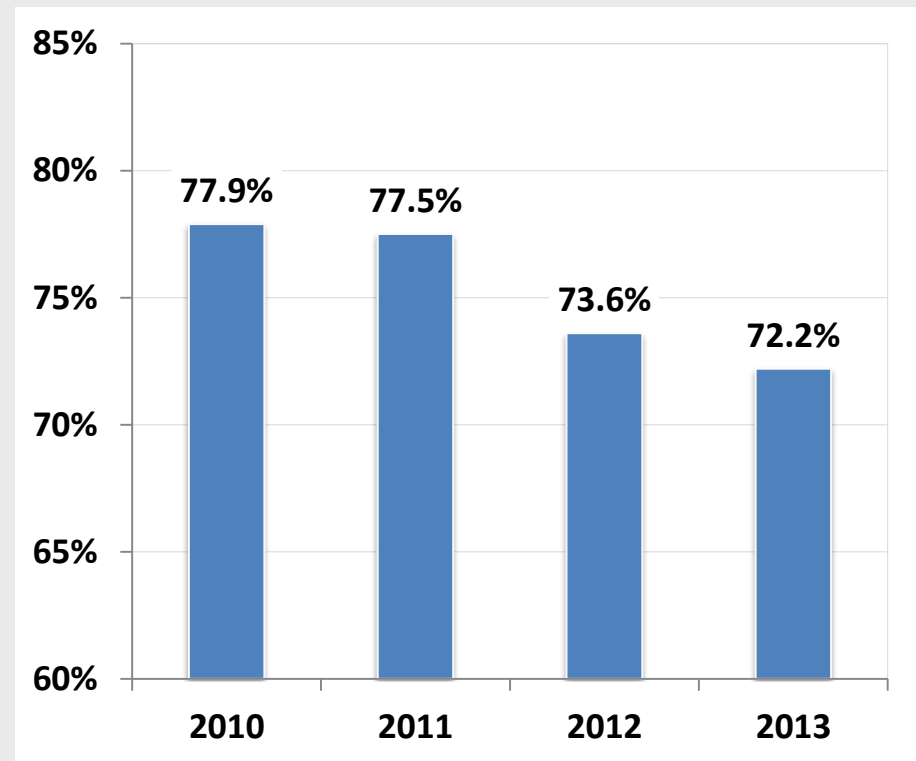
- 가계 채무상환비율의 상승: 16.2%('10)에서 19.5%('13)
- 가계 평균소비성향 하락 : 77.9%('10 3Q)에서 72.2%('13 3Q)

<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>



자료: 통계청

< 평균소비성향 >



자료: 통계청
주: 각 년도 3분기 기준.



2. 내수 활성화 과제: 내수 기반 확충

① 성장잠재력 확충

- 총요소생산성 제고(공공부문 효율성, 노사관계, 사회적 자본 등)
- 인구구조 악화 개선(합계 출산율 제고 등)

② 친투자환경 조성

- 투자 환경 경쟁력 제고(규제 혁신, 지식창조산업 인프라 구축)
- 기업 글로벌 경쟁력 지원(기초R&D, 전문인력)
- 지역간 투자 유치 경쟁 체제 도입

③ 소비기반 확충

-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하락 유도를 통한 구매력 확보
- 가계 경직성 지출 축소 유인 (사교육비, 주거비, 노인부양비)



2. 내수 활성화 과제: 내수 기반 확충

④ 내수 산업 활성화

-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(보건 · 의료, 교육, 관광, 금융, S/W)
 - (온라인) 초국경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출 진작
 - 예, 문화콘텐츠(음악, 게임, 드라마 등) 개발, 원격의료 확산, 사이버교육 확대
 - (오프라인) 관광 인프라 개선, 의료 및 교육 규제 개혁
-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
 - 정보공유, 컨설팅 등을 통한 업종내 과당, 저가 경쟁 완화

⑤ 중소 · 중견 기업 생태계 조성

- 대·중소 협력체제 정착 지원 / 해외진출(정보, 마케팅) 지원
- 외국인 산업인력 활용 / 남북협력공단 활용 확대